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두뇌 위험관리전문기관으로 도약해야...

오늘 우리 협회 창립 26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특히 간곡한 기념축사를 해주신 박은회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경과 최근의 IMF관리체제 아래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온 국민이 겪는 고통에 동참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오늘 뜻 깊은 날에 즈음하여 저는 우리 협회가 1973년 설립된 이래 지난 26년의 발자취를 잠깐 되돌아보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협회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예방과 재해손실의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무료안전점검업무는 설립 당시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한정되었으나, 도시의 광역화와 공업입지의 확산에 따라 1997년 화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국에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종별로 10% 내지 30%까지 화재보험요율의 할인 혜택이 전국적으로 제공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86년 설립된 부설 방재시험연구소는 방재기술의 시험연구와 품질인증제도의 운영에 의하여 우리 나라 방재기술수준을 높이고 국내 방화제품의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이사장 이창규

등 세계 유명 선급기관으로부터 선박용품의 화재안전 시험결과에 대하여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화재안전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인 ISO/TC 92의 국내 간사사로 지정되는 등 시험연구소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방화 및 내화제품의 수탁시험이 주 업무이었으나 지금은 연구용역 및 품질인증에 수

반되는 자체시험 비중이 높아진 결과, 연구용역 및 품질인증 수입이 전년 연구소 총수입의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위험이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험관리의 기술적 기반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 동안 선진국의 새로운 위험관리기술정보와 국내·외 각종 화재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중전산망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위험의 실체를 분석, 파악하고 평가하는 전문적인 위험관리기법을 연구 개발하여 사원사 등에 보급하고 있으며, National Fire Codes와 같은 세계적 화재안전기준에 버금가는 한국화재안전기준의 제정·보급을 통하여 위험관리기술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계몽과 방재실무교육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불조심 표어·포스터 등 화재안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

하여 우수소방공무원에게 소방안전봉사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조심 어린 이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불조심의 조기 생활화를 직접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0여명 이상의 기업체 안전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재 기술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하는 한편, 전국의 소방관에게 선진 소방기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재예방을 위한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재발생건수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불모지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뿐만이 아닙니다. 방재 산업 및 보험시장의 세계화 내지 자유화는 우리의 업무효율을 국제기준에서 가늠하여야 하는 벽찬 과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여 저는 우리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두뇌집단으로서의 위험관리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전점검은 업종별 리스크 중심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이 해외 전문 서베이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재작년에 안전점검보고서 내용을 전면 개편하여 언더라이팅 핵심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요율 자유화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점점 보고서 중 주요사항이 전산매체를 통해 사원사에 제공되면 우리는 사원사에 필요 불가결한 존재임이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위험관리기술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정보기술이 기업경영의 핵심요소입니다. 차별화되고 독창성이 있는 정보기술력을 보유한 조직만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우리의 기술정보체계를 단순히 목록을 제공 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원문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활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방재시험연구소의 인증업무는 손해보험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 대상품목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FMRC, VdS, UL 등 선진국의 유사 시험연구기관의 주된 수입원은 인증수수료이며 인증 디렉토리를 보면 손해보험의 각종 보험종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험연구소의 인증품목은 화재보험종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 신장되고 있는 특종보험 특히, 앞으로 법제화될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연계시켜 새로운 인증대상품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수익성 업무는 연구용역, 위험진단, 도면검토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가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수익성 업무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업무 쪽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단순하면서도 많은 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계속 치중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21세기에는 위험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자립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 협회에 근무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신바람나는 직장으로 키워나가는데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굳게 합심·노력하십시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5월 15일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창규